

할머니의 분홍원피스

임윤희 (2008년 제4회 5·18문학상 수상작)

“나빛아, 약탕기 알지? 옹기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 사극에서 많이 봤지? 대장금 이가 자주 썼던 거.”

“장금이가 언제 적인데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아?”

나빛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많이 섞여 있었다.

엄마와 나빛은 밤이 한참 깊어서야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도착해서도 엄마는 외삼촌과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라 잠 한숨 못 잤다. 두 분이 두런거리는 소리에 나빛도 벽시계가 세 번 치는 소리까지 듣고서는 겨우 잠이 들었다. 게다가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서울 이름 난 한약방에서 지어온 약을 달인단다. 잠에 취해 눈도 못 뜨는 나빛을 억지로 깨워 광 열쇠를 쥐어주면서 약탕기를 찾아오라고 했다.

“치, 외삼촌 외숙모는 좋겠다. 유럽 여행가고, 지금쯤 공항에 가있겠지. 난 뭐냐. 이런 촌에서!”

투덜거리며 나빛은 희뽀한 새벽안개가 내려앉은 마당을 지나 조금 떨어진 광으로 갔다. 광 앞에 선 순간 나빛은 잠이 확 달아났다. 조금 으스스 하기까지 했다. 오래된 나무 기둥은 삭아서 기우뚱 했고, 거미줄이 군데군데 엉켜 있었다. 광문을 여는데 조금은 용기가 필요했다. 큰 숨을 들이 마시곤 굳게 채워진 자물쇠를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끼이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후욱’ 하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다. 새벽이라 그런지 광 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 높지 않은 천장에 백열전구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나빛은 킁킁거리며 백열전구를 돌려 켰다. 몇 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불이 들어왔다. 갑자기 들어온 빛에 눈이 부시어 광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을 꿈벅꿈벅하며 주변을 살펴봤다. 세상에! 온갖 물건들이 뒤죽박죽 쌓여있었다. 물레, 인두, 빨래판, 다듬잇돌, 다듬이 방망이, 절구 등.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었다. 먼지가 자욱 앉은 자개장과 묵직한 뒤주도 광 안 한 편을 널찍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빛은 궁금하여 자개장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되고, 낡은 여행 가방이 들어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빛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가방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빛은 광 안을 뒤적였다. 뒤주 위에 녹이 설었지만 제법 쓸만한 망치가 보였다. 망치를 들고 자물쇠를 내리쳤다. 오랜 세월 때문에 낡아서인지 푹하니 금방 고리가 끊어졌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사는 지니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럼 소원은 뭘 빌까? 혹시 이상한 나라로 빠지는 길이 나오는 것은 아냐?’

나빛은 자신의 생각이 조금은 우스운 듯 피식 웃으며 조심스레 가방 문을 열었다. 그리곤 손을 집어넣어 조심스레 더듬어보았다.

여고시절에 교복을 입고 찍은 풋풋해 보이는 엄마의 흑백 사진이 나왔다.

“어라, 엄마네. 근데 촌스럽게 웬 이마에 사마귀 점. 결혼사진에는 없었는데 …… 아, 뺏구나! 이마에 난 점은 복점이라는데.”

또 한번 뒤적였다. 누렇게 색이 변한 분홍 원피스 한 벌이 있다. 치마 단에는 레이스가 층층이 나 있다.

“누구의 옷일까? 엄마 건가? 역시 취향이 독특해. ㅋㅋ.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뽁뽁 숨겨놨지?”

나빛은 더 이상 들어 있는 것이 없자 조금 실망한 듯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는 약탕기를 찾아 광을 나왔다.

“으악, 군인들이 온다. 어여 도망가 어여! 어여! 사람 살려! 사람!”

“엄마, 왜 그래요. 엄마 뭘 보고 이러는 거야?”

“나쁜 놈들! 어여 피해야 해. 피다 피! 난 몰아요. 으악!”

“여기에 나만 있잖아. 엄마 딸 연희! 몇 년 만에 찾아 온 딸도 못 알아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엄마가! 우리 엄마 맞는 거야?”

할머니의 괴성이 방밖으로 들려왔다. 할머니는 나빛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할머니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눈동자는 이미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빛은 할머니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지손톱을 잘근잘근 씹어댔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본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한 것은 처음이었다. 백발을 풀어헤친 모습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 나빛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당장이라도 서울행 버스에 오르고 싶었다.

“어휴~,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나빛은 그저께 일이 떠올랐다.

“치, 난 여기서 학원이나 갈 거야! 엄마 혼자 갔다 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빛은 방문을 쿵 닫으며 씩씩 거렸다.

“항상 엄마는 자기 맘 대로라니깐! 나도 내년이면 어엿한 중딩인데! 초당, 마지막 여름방학을 고작 할머니 집에서 보내라고!”

나빛은 속상하고 억울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유럽여행이다, 해외어학 연수다,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다 하며 들떠 부산한데 기껏 외할머니 집이란다. 지리산 밑에 초라한 한옥집이란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봤던 할머니는 화가 나면 술도 먹고, 엄마에게 고함도 치고, 주장질도 하고, 간혹 물건도 내던졌다. 짹짹한 목소리는 엄마보다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나빛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방문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엄마, 엄마 혼자 갔다 와. 난 여기 있을 게. 모기 우글우글 한 곳에 가기 싫어.”

“걱정 하지마. 모기장 텐트도 있고, 모기향도 있으니까.”

나빛은 방문을 벌컥 열면서 엄마를 향해 코 먹은 소리를 냈다.

“오빠는 안 가잖아!”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이잖아. 공부해야지. 그리고 너는 아직 엄마랑 있어야 해.”

“내가 유치원생 아닌데 왜?”

“세상이 너무 험해! 너 엇그제 났던 유괴 사건 봤잖아.”

엄마는 이상하게도 오빠보다 나빛에게 주과수를 더 맞추고 있었다. 나빛이 친구들과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장소에 간다거나 제법 목소리가 굵직한 남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척 싫어했다. 하지만 나빛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잔꾀를 내 엄마 몰래 친구들과 예쁜 옷도 사러 가기도 했다. 쪽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하는 남자 아이들을 학원도 빼먹고 만나기도 했다. 15세 이상 관람 영화도 엄마 몰래 보고는 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다. 엄마는 보디가드처럼 나빛의 등하교 길에 나와 계셨다. 다들 다니는 보습학원도 끊게 하고, 직접 기말 시험 준비를 해주셨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 휴~ 나빛아, 어떻게 하겠니? 네가 좀 양보 좀 해다오. 그래도 엄만데……. 나에게 싫은 소리 많이 했어도 나의 엄마잖아. 정리 정돈을 잘 하던 엄마가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래. 여름 동안 봐줄 사람이 없대…….”

나빛은 엄마의 눈물 먹은 목소리에 화가 조금 숙여졌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라는 것이 낯설게 들렸다.

“할머니는 나를 아마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유치원 때 보고는 못 봤잖아.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나란 아이는 할머니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 아, 너무 슬프다……!”

“이구, 그래도 그냥 서울에 남겠다고, 우겼어야지. 바보! 넌 너무 마음이 약해!”

나빛은 자기 머리에 ‘쿵’ 하니 쿵알을 먹었다.

한참 뒤 엄마가 할머니의 실례한 속옷을 들고 나오셨다.

“나빛아, 괜찮지?”

하도 울어서인지 엄마의 두 눈 두덩이가 두꺼운 솜뭉치를 집어넣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으~응, 엄마도 괜찮지?”

*

엄마는 나빛에게 억지로 찡긋 웃어보였다.

“엄마, 근데 할머니,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해는 서산으로 금방 넘어갔다. 하지만 해가 토하고 간 붉은빛 노을은 한참을 하늘을 아프게 물들였다. 나빛은 텃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는 할머니 옆에 자리를 피고 누우셨다. 할머니는 이미 곤하게 주무신다.

“휴~, 나빛아 혼자 자라. 안 무섭지? 아고고. 피곤하다.”

“무섭기는. 근데 엄마 언제 집에 가. 나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집에 가니? 어제 온 거 알지. 나빛아? 이제 겨우 하루야.”

“휴~, 그런가? 근데 마치 일 년을 이곳에서 지낸 건만 같아. 나 혼자 집에 가면 안 될까?”

“애가, 안 돼!

나빛은 입을 삐죽이며 엠피쓰리를 귀에 꽂았다.

가수 예픽하의 신곡 ‘원(one)’이 들려왔다.

“상처가 병이 돼서~모든 문이 벽이 돼서~”

따라 불렀다. 입모양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눈꺼풀도 스르륵 감졌다. 나빛의 고개가 아래위로, 옆으로 좌로 흔들렸다.

갑자기 ‘탁’ 방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부시럭 부시럭 부시럭"

이상한 소리도 작게 들렸다.

"댕그랑~"

세숫대야가 떨어지는 소리가 찌렁 하니 들렸다. 나빛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마,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일 거야. 자자. 그냥 자자.'

나빛의 눈이 다시 스르륵 내려앉았다.

"저벽 저벽 저벽"

이번에는 제법 굵직한 발자국 소리가 마당에서 들렸다. 나빛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달이 환하게 비추어 마당 안이 환히 보였다. 희끗한 것이 어슬렁거렸다.

나빛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 다행이다. 할머니이다. 아무렇게나 엉켜버린 백발의 할머니가 마당을 서성였다. 조금 무서워 보였다. 게다가 별개미취가 한창인 화단을 기웃거리셨다. 꽃대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조금 무서워 보였다. 게다가 별개미취가 한창인 화단을 기웃거리셨다. 꽃대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뭔가를 찾고 계셨다.

"할~할머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빛의 질문에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분명 여기일거여."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맨 손으로 화단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어딤지? 없네. 우리 딸 주려고 여기다가 숨겨놨는디. 군인이 빼사갔나!"

"할머니 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빛이 부스스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갑자기 할머니는 뭔가를 기억해 냈다는 듯 고개를 까닥였다. 그러더니 굵은 무릎을 힘겹게 펴시곤 마당 저 한쪽 구석에 떨어져 있는 광으로 향해 갔다. 나빛이 부르는 소리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가 광 앞에 갑자기 멈춰 섰다. 나빛은 움찔했다. 할머니가 광문을 열었다. 그리곤 주저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이 캄캄한 밤에 광엔 뭇 하러 가시는 거지?’

나빛은 광문 앞에서 안절부절 했다. 아까 봤던 거미줄과 널려있는 물건들이 떠올라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는 무섭지도 않나?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하나? 엄마를 깨울까? 아냐. 너무 피곤해하셨어. 에라, 모르겠다.’

아랫배에다 힘을 잔뜩 주곤, 성큼성큼 광 안으로 들어갔다.

질은 침묵이 광 안에 흘렀다.

“꼰깍”

침 넘기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나빛은 깜짝 놀랐다. 눈앞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에 봤던 천장의 백열전구를 기억해 냈다. 허공에다 손을 휘저었다. 몇 번을 더듬더듬 휘저으니 무엇인가가 손에 부딪혔다. 전구다.

“딸깍딸깍”

전구를 켰다. 몇 번 작은 불빛이 깜박이더니만 순간 강한 섬광이 ‘번쩍’ 하면서 나빛 눈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빛은 그 빛을 주체할 수 없어 두 손으로 눈을 꼭 감았다. 통증이 느껴졌다. 이상한 물체가 어른어른 거리는 것도 같았다. 눈을 꿈벅꿈벅 거렸더니 몇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한 망치로 맞은 듯 머리는 멍하고, 멍멍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히 조금 눈을 떴다. 조금 어지러웠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참 큰 일이다. 나빛의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전구를 켜는데 캄캄한 어둠뿐이다.

‘뭐야 이거, 갑자기 전구가 나갔나? 아니면 장님 된 건가!’

겁이 더럭 났다. 나빛은 손을 펴서 더듬더듬해 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 본다.

"바시락"

발 아래 무엇인가가 밟히는 소리가 났다. 느낌으로는 마른 나뭇가지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휴~, 다행이다.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인다.

‘그래, 눈이 먼 건 아니었어.’

나빛은 불빛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불빛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빛에게로 빠르게 다가 왔다. 세상에! 버스다.

‘아니, 광 안에 버스가 다 다니네. 뭘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빛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곤 자기의 얼굴을 한 번 꼬집어 봤다.

“아야, 말도 안 돼.”

버스 빛을 통해 보니 나빛이 있던 곳은 어느 깊은 산 중의 외딴 도로다.

“사차원 세계로 빠져 나온 건가?”

나빛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일단 사람을 만나 물어보기로 한다. 나빛은 버스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여기요. 좀 세워주세요."

그러나 버스가 다솔이 앞을 썹하니 그냥 지나쳐 간다. 다솔이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진다. 고개가 푹 떨어진다.

"끼이익"

전방 한 50미터 앞에서 버스가 멈췄다.

'그럼 그렇지!'

나빛은 헐레벌떡 버스를 향해 뛰어갔다. 버스 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엉거주춤 내려왔다. 그러더니 풀숲으로 사라졌다.

'아이구, 무지 급하셨나보네. 화장실도 아닌 풀숲에서 실례를 하시니.'

나빛은 조심스레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푸르스름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기사 아저씨의 담배 연기다. 덤성덤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학생 교복처럼 생긴 옷을 입은 언니가 기사 아저씨 뒤에 앉아 꾸벅 졸고 있다. 나빛은 기사 아저씨에게 쭈뼛쭈뼛 다가간다.

"저.. 가출 한 아이 아니거든요. 저,,,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나빛은 머리를 굽적이며 멧쩍은 듯 말을 건넸다. 그런데 웬 일일까? 아저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계속 뽀뽀뽀뽀 뽀뽀 연기만 피워댄다.

"아저씨, 죄송한대요. 여.기.가. 어.디.에.요?"

나빛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졸고 있던 언니의 고개가 뒤로 까딱까딱 넘어가려다가 화들짝 놀라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더니 나빛은 본 체도 안하고 긴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댄다.

"아이참, 그 할머니 볼 일도 징하게 오래도 보요."

"안내양, 한 번 가봐. 혹시 버스 비도 안 내고 도망간 거 아냐? 아님 간첩인지도 몰라. 요즘 간첩들이 야산에 빠라를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안내양이라고 한다. 분명 아저씨가 안내양이라 불렀다. 나빛은 신기한 듯 언니를 뺨히 쳐다본다. 빵덕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전대를 차고 있다. 엄마에게 듣기만 했던 버스 안내양이다. 안내양은 부시시 일어나 버스에 내려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뭐해요. 빠스 출발항게 어서 오시셔잉."

할머니는 허리춤을 뒤척이며 버스 쪽으로 오셨다. 나빛은 궁금하여 창문 가까이 가 할머니를 쳐다본다. 쪽진 머리가 점점 버스로 다가 온다. 고개를 다시 돌리려다 나빛은 눈이 손전등처럼 번쩍한다. 재빨리 다시 고개를 휙 돌려 창밖을 본다.

"저...저게 누구야! 으악!"

지금 보다 허리도 꼳꼳하고,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더 많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할머니다. 나빛 입이 좀처럼 닫혀지지 않았다.

"시원허구먼. 낮에 냄새가 시큼한 고구마를 그냥 먹었더니 그놈이 잘못 됐나 봐요. 죄송혀요."

멧쩍게 웃으시면서 할머니는 버스 맨 뒤 좌석, 초록색 여행 가방이 있는 곳에 가앉는다. 안내양 언니가 버스 문 옆을 손바닥으로 두 번 탕탕 친다.

"오라이"

나빛은 외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나빛예요. 저요 저."

할머니 앞에서 팔을 휘저어 보고, 아무리 말을 걸려고 해도 나빛을 못 본다. 나빛은 참 답답하다. 저기 앞자리에 밀짚모자를 쓴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 신문을 보면 여기가 어디고,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빛은 일어나 밀짚모자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덜커덩!"

갑자기 버스가 기우뚱 한다. 나빛이 밀짚모자 아저씨에게로 쓰러질 뻔 했다.

“어이쿠, 기사 아저씨, 조심히 운전하세요. 애가 넘어질 뻔 했잖아요.”

밀짚모자에 덩치 큰 아저씨가 기사아저씨를 나무라신다. 그러면서 허연 이를 보이더니 나빛을 향해 한쪽 눈을 찡긐해 보였다.

“이 아저씨에게 내가 보이냐? 아저씨! 제가 보이세요? 아저씨, 저 보여요?”

밀짚모자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문을 보신다.

“그럼 그렇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이 아저씨에게 보일라구. 언제인지나 보자.

**신문, 1980년 5월 21일이 나빛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뭘! 1980년이라구. 그럼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옛날에 와 있는 거야?”

나빛은 다시 할머니 옆으로 와서 지금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나빛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 분명 난 할머니를 따라 광 안으로 들어왔어. 산 속에 있다 가, 지금 버스 안에 있고, 한참 젊은 할머니가 옆에 계셔.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신문은 1980년 5월 21이래. 그럼 뭐야?! 할머니의 과거 속으로 들어 온 거야?’

나빛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마치 3D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지?’

나빛은 고민을 한참을 해보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그만 피곤한지 졸음이 몰려왔다.

버스가 한참을 내달린다.

"아빠, 할머니 용기도 징허요. 지금 광주는 들어가기 어렵지라. 군인들이 짝 깔려서 지금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안 허요."

"내 딸이 지금 광주 여고 1학년이 아니오. 내일이 그 아이 생일이라오. 연락도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안 나왔소."

"그러도 지금 이 빠스는 광주까지는 앙 가고, 화순까지밖에 앙 가는 게라."

"알고 있구먼. 걱정 마소. 화순에서 광주까지 너릿재만 넘어가면 금방이니깐."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다.

나빛은 졸다가 화들짝 깬다. 종점이다.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소중히 가슴팍에 안는다. 나빛의 눈에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온다.

“어, 이거 광 안에 있던 가방이네. 야, 지금 보니까 새 거다!”

할머니는 버스에 내려 걸음을 너릿재로 옮긴다. 나빛은 할머니를 놓칠세라 뒤따라 간다.

"똥, 할머니 걸음이 이렇게 빠르냐? 완전 축지법이네. 할..할 머니, 같이 가요. 맞아 소리쳐봤자 듣지도 못하지! 어휴!"

나빛은 헐떡헐떡 거리며 할머니를 따라가려 하지만 할머니는 벌써 저만치 앞서 간다.

구름이 잔뜩 끼있는지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어둠이 푹푹 묻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할머니의 흰색 한복이 만이 등대처럼 나빛의 걸음을 이끌었다.

할머니는 울퉁불퉁 깔려있는 돌멩이와 서로 엉켜있는 나무뿌리 때문에 몇 번을 넘어질 뻔 하셨다. 나빛은 그런 할머니를 뒤에서 지켜 볼 때면 가슴이 철렁했다. 나빛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멩이에 걸릴 일이 없는 투명 인간일 뿐이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선다. 그러더니 한참을 움직이지 않는다.

"드디어 다 왔나 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빛은 젓 먹던 힘을 다해 할머니 곁으로 뛰어갔다. 헉헉거리며 할머니 옆에 섰다. 숨을 고르고는 할머니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을 함께 봤다. 거대한 잠수함 같은 도시가 바다 깊숙한 곳에 내려앉은 듯 했다. 빗고을 광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두웠다. 몇 개의 불빛만이 이곳이 도시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먼. 내 딸아, 쫄만 기다려라. 이 에미가 곧 간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겁났을까?'

할머니는 코 먹은 소리를 하시더니 콧등을 부여잡고 팽하니 풀어낸다.

“뭘, 딸? 그럼 울 엄마를 찾으려고 이 고생을 하신 거야? 맨 날 할머니가 엄마에게 나쁜 소리를 해대서 미워한다고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우와, 우리 할머니 정말 멋지다. 감동, 감동이네! 자식을 위해 이렇게 험한 길을 오시다니. 근데 엄마는 뭐냐? 할머니와 맨 날 왜 싸우는 거야? 아참. 나도 그렇지. 남들이 보면 엄마가 맹자 엄마이지만 나에게서는 순 간섭쟁이 엄마니까. 그래서 나도 엄마랑 싸우지. 매번 내가 지지만!"

할머니가 고갯길을 내려간다. 나빛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할머니 걸음에 맞춰 걷는다. 산바람이 등을 떠밀어 주어 가뻘히 내려간다. 얼마가 지났을까. 커다란 트럭이 지나다닐만한 넓은 도로가 나왔다. 할머니는 부랴부랴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로를 한참 건다보니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전조등불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다. 자그마한 버스다. 오랜만에 빛을 보니 할머니와 나빛은 반가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둠을 가르는 총탄불빛이 산등성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총탄은 거침없이 미니버스를 향해있었다. 할머니는 귀를 막으며 낮은 포복으로 납작 엎드렸다. 나빛도 할머니를 따라 귀를 막으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도대체 뭘 일이나냐? 정말 북한에서 또 내려온 것이여?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나?"

할머니는 오들오들 떨었다. 총성 사이로 사람들의 크고 작은 비명 소리가 나빛의 귀에 들려왔다.

"난 사람 죽은 것 영화로도 못 본단 말이야! 어떻게 해!"

나빛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총성이 멎었다. 그러더니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군화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일어나 여행 가방을 부여잡고, 소리를 죽여 가며 총격전이 있었던 곳 가까이 다가갔다. 나빛도 따라 갔다. 총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 주변을 둘러싼 군인들도 보였다.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다.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는 지켜보았다.

"이봐, 살아남은 자들이 있나 잘 살펴봐. 한 명이라도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갔다가는 우리들이 죽는 거 알지! 어서 살펴 봐!"

지위가 높은 듯한 군인이 지휘봉을 휘두르며 다급한 목소리로 부하 군인들을 재촉했다. 군인들은 무시무시한 소총을 들고 버스 안에 들어갔다. 그러곤 피 자국이 흥건한 시신들을 끌고 나왔다. 교련복을 입은 대학생도 있는 것 같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도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런 우쭐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뒤로 주주 물러앉았다. 할머니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좀처럼 참아지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군인 한 명이 할머니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나빛은 그냥 볼 수 없었다.

"할머니 도망 가! 빨리! 군인이 온단 말야! 어서 피해!"

나빛은 할머니의 팔을 부여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냥 통과만 할 뿐 잡히지 않았다. 투명인간인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학교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을 때, 투명인간이 되는 상상을 가끔 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뭐야, 이거! 왜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냐고!"

나빛은 정수리가 화끈거릴 정도로 화가 났다. 그 화가 점점 퍼져서 산골짜기에 가득 채우 듯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으로 산고양이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내달려 갔다.

"뭐야, 산 고양이잖아."

군인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군인들이 시신을 산속 깊숙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11구의 시신이 차례로 산속으로 옮겨졌다. 시신을 옮기고는 군인들은 군용 트럭을 타고 사라졌다.

산 속엔 너무도 무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개미 한 마리 숨 쉬고 있지 않을 것만 같은 고요였다. 할머니는 여행 가방에서 보자기에 쓴 무엇인가를 꺼냈다. 웃인 듯 했다. 그러고는 커다란 바위 밑을 허겁지겁 파더니 소중히 그곳에다 묻었다. 옆에 있던 조금 큰 돌맹이를 그곳에 얹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하시더니 휘청휘청 버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시상에 이게 뭘 일이며. 이게 사람이 할 것이여!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산 속의 침묵을 짹짹 갈라놓았다.

버스 안에서 나오시더니 군인들이 시신을 옮겨 간 곳으로 갔다. 나빛은 그곳으로 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모든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으아악 할머니!"

나빛은 할머니를 찾아 뛰어갔다. 외할머니가 숲에서 누군가를 등에 업고 뛰어나왔다. 마치 달리기 선수 같았다. 할머니에게 이런 힘이 남아 있나 싶었다.

"안 돼야. 아직은 아니다. 시상에 시상에."

할머니 얼굴이 피투성이다. 등에 업힌 사람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 교복 사이로 축 늘어진 팔과 다리가 출렁일 뿐이다. 나빛은 할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땀박질을 했다. 할머니가 산 밑으로 내려갔다. 나빛도 어느새 할머니 옆에서 뛰고 있었다. 힐끗 등에 업힌 여자를 봤다. 어둠이 짙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구름 사이로 달님이 나와 여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누굴까?" 나빛은 궁금하여 계속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나빛의 엄마다. 광 안에서 봤던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이다. 이마에 커다란 사마귀 점이 나 있는 여고시절 나빛의 엄마다. 나빛의 다리에 잡자기 힘이 풀렸다. 그러더니 발을 헛디디 넘어지고 말았다. 엄마를 업은 할머니는 단숨에 저 밑으로 사라졌다.

"할머니, 엄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쫓 수 있냐고! 군인들은, 군인들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라 했는데. 뭐냐고. 왜! 왜냐고?"

나빛은 산속 어둠에 갇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지쳐 그만 땅바닥에 쓰러졌다. 죽음이 꼭 이런 것 같았다. 어디선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빛아, 나빛아, 우리 나빛이 고생하는 구나."

"누,,,누구세요?"

나빛은 안 떠지는 눈을 억지로 떴다. 형클어진 백발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다.

"어떻게 하나? 이 할매 때문에 우리 나빛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도 이 할매 좀 도와줄 수 있니?"

"할머니! 뭘요?"

"괜찮다. 나중에. 지금은 좀 쉬어야 해."

할머니는 나빛을 품에 안고는 다독였다. 나빛은 너무도 편안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나빛아. 괜찮니? 어떻게 식은 땀 좀 봐. 나빛아 눈 좀 떠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빛은 신음 소리를 내며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다.

"엄마, 엄마, 엄마!"

"나빛아, 엄마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아~ 아악"

나빛은 고함을 지르며 눈을 번쩍 뜬다.

"나...나빛아, 괜찮아. 왜 그래? 응 어디 아프니?"

나빛은 화들짝 놀라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산 거야?"

"뭘 소리 하는 거야? 무서운 꿈 꾸곤 거야?"

나빛은 엄마를 갑자기 부둥켜안으며 소리 내어 울었다.

"엉엉엉, 엄마 난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엄마, 살아있어서 고마워. 엄마~"

"대체 뭘 꿈을 꾸곤 거야?"

나빛은 엄마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 하려다가 멈칫 한다.

‘엄마가 내 말을 믿을까? 광 안으로 갔더니 할머니의 옛날 기억 속으로 가게 되었다는 걸. 아마, 더위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보약이나 지어주실 거야.’

나빛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 밤새 악몽에 시달렸어."

"어떤 꿈이었는데?"

"괴물이 나타났어. 군인 괴물. 군인 괴물들이 나타나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엄마도 막 총으로 쏘어. 그래서 엄마도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 할머니가 나타나 엄마를 업고 막 뛰었어."

"어머나! 세,,세상에, 세상에나! 이런 일이?"

엄마는 나빛의 이야기를 듣자 퍼렇게 질린 얼굴을 했다. 가슴으로 손을 가지고 가더니 숨을 가쁘게 내쉴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디 아파?"

나빛은 얼른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엄마는 물을 마시고는 조금 진정된 듯 했다.

"어떻게 네 꿈으로 나타났을까? 몇 년 동안이나 눈만 감으면 그 꿈이 똑같이 되풀이 되었어.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악착같이 악몽이 달려드는 것 같았어."

"엄마……!"

"이젠 괜찮아. 그까지 28년 전에 있었던 일들, 이젠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아. 하지만 네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아니, 네가 조금 더 크면, 대학생 때쯤일까? 그때 말해주려고 했어."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꿈이 진짜 있었던 일인 거야?"

"나에게 언니가 있었어. 쌍둥이 언니. 언니는 나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 눈도 코도. 언니의 이마에 난 점이 아니면 모두 다 헛갈려 했지."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빛은 여행 가방에서 봤던 엄마의 얼굴과, 지난밤에 할머니 등에 업혔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는 똑똑했어. 공부를 참 잘했지. 그래서 언니는 오빠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난 여기 읍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 한 몸같이 지내다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된 거야. 얼마나 허전하던지……. 하지만 더 긴 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 광주에 계엄 군인들이 몰려와 외지와 모든 것을 차단시켰어. 전화선도 다 끊었지. 언니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를 구하러 화순으로 가는 대학생들 오빠들을 따라 버스에 올랐어. 버스가, 버스가 막 광주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계엄 군인들이 총을 쏘어. 언니를 향해. 학생들을 향해. 무참히."

나빛의 엄마는 이야기를 힘겹게 마쳤다. 엄마와 나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나빛아.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가 거기에 없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살아있어 줘서. 참 좋아."

나빛은 엄마를 안아줬다.

"나도 너와 같은 악몽에 몇 년 동안 시달렸어. 하지만 이제는 끔찍없어. 자 봐."

엄마는 나빛을 행해 웃어 보였다.

나빛은 엄마가 땀자도 아닌 자기에게 땀자 엄마처럼 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반가운 것은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고, 진짜 할머니의 기억이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

나빛은 엄마와 아침밥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근데 할머니는 왜 많고 많은 기억 속에서 거기로 갔을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인데. 그러니 군인들이 와! 도망가! 하면서 고통을 지르지. 이왕이면 행복한 기억 속에 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와 테이트 하는 기억, 할아버지와 첫날밤, ㅋㅋ. 아니면 어린 시절 물놀이하면서 놀았던 기억. 정말 좋은 기억이 얼마나 많은데!’

나빛은 할머니의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글썄, 아마도 어린 시절이 아닐까? 친구들과 미역도 감고. 재미있잖아."

"그렇까?"

나빛은 엄마와 함께 할머니 방으로 갔다. 혹하니 지하철 공중 화장실 냄새가 났다. 텔레비전은 왕왕거리고 있었다. 엄마가 방안을 걸레질을 했다.

"이게 뭐니? 너희 할머니가 몽유병도 있나보다. 밤새 뭐하셨는지 방안이 온통 진흙투성이다. 속상해 정말."

“그러게. 어딜 헤매고 다니셨나…….”

나빛은 의문스럽게 모른 척 한다. 엄마는 걸레를 빨러 나가신다.

할머니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또 이상한 말을 하시네. 할머니 어제요,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죠?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찾아주세요. 제 딸 거요. 분홍색이에요. 묻었어요. 제 딸아이 주려고 묻었는데 없어졌어요.”

“할머니, 뭘요?”

“제 딸 거예요. 제 딸 거. 제가 물어봤어요.”

“어휴, 지금은 알아내기 어렵겠어. 오늘 밤 다시 알아봐야겠어.”

나빛은 할머니를 꼭 도와드리기로 다짐을 했다.

그 날 밤에도 나빛의 생각대로 할머니는 광 안으로 사라지셨다. 이번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빛은 할머니를 따라 광안으로 들어갔다. 어제와 똑같이 나빛은 깊은 산 도로에 서 있고, 할머니를 따라 버스를 타고 내렸다. 힘겹게 산을 오르고, 할머니와 함께 비참한 현장을 목격했다. 바위 밑에 할머니가 가방을 열어 무엇인가를 묻어두고 큰 돌멩이를 얻어 놓은 것을 봤다. 젊은 할머니는 오늘도 이모를 등에 업고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나빛은 뛰어 내려가는 젊은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얼마 뒤, 나빛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험클어진 백발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다. 나빛 곁에 좀 떨어진 곳에서 풀숲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이며 무엇인가를 찾고 계셨다. 나빛은 젖은 눈을 닦으며 할머니 곁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뭐하세요?”

“여긴데, 여기 어디쯤인데…….”

“뭘 찾으시는 대요?”

“내 원피스, 우리 딸 주려고 숨겨놨는데, 안 보이는구나. 군인들에게 빼앗길까봐 여기 어디에 다가 숨겨놨는데 없어졌어.”

“원피斯拉구요?”

나빛은 아까 젊은 할머니가 낡은 여행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땅속에 묻었던 것이 떠올랐다.

“할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할머니가 찾은 것이 어찌면 저기에 묻혀있을지 몰라요.”

나빛은 할머니를 이끌고 커다란 바위 쪽으로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멩이 없어놓은 곳이 보이지 않았다.

“나빛아, 어디야? 어딘 게야?”

“여기 어디였는데! 할머니, 찾아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곳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만질 수 없는 투명인간일 뿐이에요.”

“찾아다오. 나빛아. 제발, 찾아다오.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꼭 갖고 가고 싶구나. 딸을 다시 만나면 입혀주고 싶어.”

할머니는 나빛의 손을 잡으며 애원을 했다. 나빛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 원피스를 찾으려고, 이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시는지 몰라. 할머니가 이 기억 속에서 벗어나려면 꼭 원피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래, 한 번 해보자.’

나빛은 정신을 모으고, 배에다 힘을 줬다. 그러고는 곡괭이처럼 두 손을 구부리고는 땅을 파봤다. 하지만 그냥 통과만 될 뿐이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허탕이다.

“할머니, 안 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냐, 나빛아. 넌 분명 할 수 있을 게야. 나도 했는데 네가 못 할라구.”

“정말요?”

할머니의 말에 나빛은 어깨에 힘을 준다. 그리곤 손을 세차게 땅에다 내리 쏜다.

손이 쭉 땅 속으로 파고들더니, 붉으스름한 흙덩이가 나빛의 손에 잡힌다.

“할! 할머니, 제가 땅을 팠어요. 와아!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빛은 너무도 신이 났다. 있는 힘을 다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바위 밑을 파봤다. 아무것도 없다. 바위 주변 모두를 파본다.

“아까 분명히 젊은 할머니가 뭔가를 묻으셨는데! 할머니, 그게 꼭 필요해요?”

“찾아다오. 내 딸이 꼭 입고 싶을 게야. 제발 나빛아!”

나빛은 할머니를 위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온통 밭고랑처럼 풀밭이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도 원피스는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동쪽하늘에 푸른 기운이 돌더니 새벽이 밝아왔다. 나빛은 녹초가 되어 땅에 쓰러졌다.

“나빛아!”

엄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부터 또 잔소리구나!’

“어서 일어나봐! 이게 뭐야 온통 집안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어놓고!”

진흙이라는 말에 나빛의 눈이 크게 떠진다. 일어나 보니 사방이 흙투성이다.

“너 혹시 여우색시니? 어느 무덤을 파고 온 거야? 애가 할머니 집에 오더니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네? 너도 몽유병이야? 너희 할머니가 안 그러니 네가 그러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빛은 또 밤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 하려다가 그만 둔다. 나빛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일들이기 때문이다.

“휴! 그러게. 내가 뭘 일을 한 거지? 엄마. 나 정말 몽유병인가? 이것 봐. 손톱에도 시커먼 흙이네! 어떻게 엄마!”
일부러 엄마에게 겁을 준다. 엄마의 얼굴이 긴장된다.

“안되겠다. 이따가 할머니 잠시 옆집 아줌마에게 맡겨놓고 읍내에 갔다 오자. 한약 한재 먹어야겠다.”

“으익!”

나빛은 엄마가 아침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광 안에 들어갔다. 그리곤 자개장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거기에는 여전히 이모의 사진과 분홍원피스가 놓여있었다.

‘할머니가 찾는 게 이 원피스 아닌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왜 그 먼 기억 속에서 찾아 헤매시는지?’

나빛은 분홍원피스와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로 갔다.

“엄마,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아니, 이게 뭐야? 원피스네.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옷이야. 아직도 레이스가 살아있네. 너무 반갑다! 이거 어디서 찾았니? 오래전에 버렸는줄 알았는데.”

엄마는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광 안에서 찾았어. 누구 옷이야? 엄마.”

“내 꺼야. 고 1 생일 선물로 엄마가 사주신 거야. 몇 번 입지 못했지만……. 입고 나가면 모두들 쳐다봤는데……. 네 할머니가 이 옷을 버렸다고 하셨어. 언니가 광주에서 죽고는 이 옷을 못 입게 하셨어. 자꾸 언니 생각이 나선가 봐.”

“엄마 언니도 쌍둥이니까 이 원피스가 있겠네?”

“엄마가 언니에게 생일날 주려고 원피스를 광주로 가지고 가셨어. 중간에 군인들을 만나 산속 어딘가에 묻어두셨다고 했는데, 다시 찾지 못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그 원피스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모의 원피스를 찾고 계셔.”

“나빛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 이제 좀 뭔가 풀리는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애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여 읍내 갈 준비 해.”

엄마와 나빛은 보약을 짓기 위해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나빛의 청바지 주머니에는 할머니 집에 올 때 아빠가

두둑하게 주신 용돈이 들어있었다. 나뭇 머릿속에는 온통 분홍원피스 뿐이다.

‘요즘도 이런 분홍원피스가 있을까? 엄청 촌스러운 모양이던데!’

한약방에 들렀다 나오는데 엄마는 어릴 적 친구를 만났다. 엄마와 친구 분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나뭇은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시골 장은 서울에서 볼 수 없던 신기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약장사도 있고, 뽕장사도 있다. 하지만 나뭇이 찾는 원피스는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요즘은 레이스 달린 원피스는 나오지 않는단다. 날씬한 투피스 아니면 쓰리 피스란다.”

“분홍색을 요즘은 잘 안 쓴단다. 80년대나 유행한 색이지.”

가는 양장점마다 나뭇이 봤던 원피스가 없었다.

‘어떻게 하지? 어디가면 구할 수 있을까?’

나뭇은 아픈 다리를 절룩이며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자 오세요. 오세요. 구경하세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자, 거칩니다. 거저! 단 돈 1000원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주기도 합니다.”

커다란 트럭 앞에 유행이 지난 옷을 한 가득 쌓아놓고, 또 한 쪽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넣어 넣고 팔고 계신 아저씨가 보였다.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낮이 익은 아저씨인데 나뭇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뭇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옷가지가 쌓여있는 곳으로 갔다. 털썩 주저앉았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인형, 오래된 축음기, 찌그러진 낫그릇 등등을 보니 신기했다.

‘아차, 원피스!’

나뭇은 산더미처럼 옷이 쌓여있는 것을 뒤적였다. 옛날 옷들만 모아왔는지 조금은 후들후들하고, 색이 바란 것도 있다.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린이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아줌마도 오세요.”

밀짚모자에 콧수염을 길게 기른 아저씨가 마치 옛장수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나뭇은 그 소리가 조금 귀찮고, 성가셨다. 일어나려는 순간 옷들에 쌓여있는 구석 깊은 곳에서 뭔가가 반짝하는 것이 보였다. 나뭇은 그게 뭔가 궁금했다.

“뭔가 번쩍했는데 뭐지?”

나뭇은 커켜이 쌓여있는 옷들을 건어냈다.

“와아, 분홍 원피스다. 내 원하던 원피스야!”

연한 분홍빛에 치맛단에는 예쁜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다. 조금 구겨지고, 손때가 묻어있지만 새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거! 아저씨, 이거요.”

“아, 꼬마야, 그 원피스! 참 잘 골랐다. 그 원피스는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새 옷이란다. 내가 얼마 전에 화순 너릿재에서 찾았지. 이 아저씨가 보니 넌 참 착한 아이구나!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으니. 하하.”

나뭇은 너릿재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어쩌면 이 원피스가 엄마의 쌍둥이 이모의 원피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꼬마야, 장이 내일까지 선단다. 그래서 난 내일까지 여기에서 물건을 팔 거야. 혹시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오도록 해라. 여기엔 없는 게 없단다.”

‘내 참, 꼬마라니! 어휴, 원피스만 아니면 그냥 갈 텐데……. 꼭 텔레비전에서 본 유괴범 같아. 근데 어디서 분명 봤는데……. 어디서 봤지?’

나뭇은 얼른 엄마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뭇은 빨리 밤이 되길 기다렸다. 조바심에 할머니보다 일찍 광 앞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분홍원피스는 종이 가방에 잘 접어 넣어왔다. 드디어 할머니가 나타났다. 성큼 광 안으로 들어갔다. 전구 빛이 금방 켜졌다 사라졌다.

나빛도 광 안으로 들어섰다. 빨리 할머니에게 분홍원피스를 드리고 싶었다. 나빛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은 급하게 천장에 달린 전구를 켰다.

“달가닥”

어라 이게 웬일일까? 헛방이다. 다시 한 번 돌려 본다. 이번에도 헛방이다. 불은 켜지지 않고, 광 안에 고요만이 가득하다. 할머니는 이미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셨는지 흔적이 없다. 나빛만이 어두컴컴한 광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전구가 나갔나봐. 뭘 이런 일이 다 있어!”

오늘은 포기해야만 할 거 같다.

나빛은 뜬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다. 날이 새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마음이 조려 잠이 오지 않았다. 드디어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빛은 재빨리 광으로 향했다. 까치발을 하고는 전구를 다시 한번 돌려 봤다. 켜지지 않았다. 나빛은 조심스레 전구를 빼냈다.

엄마를 졸라 아침밥을 일찍 먹은 나빛은 읍내 행 버스에 올랐다.

‘분명 그 아저씨가 없는 거 없이 다 있다고 했어. 오늘까지 나오신다고 했지? 꼭 있으면 좋겠다.’

나빛은 버스에 내리자마자 어제 밀짚모자 아저씨가 계셨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직 일러서 그런지 아저씨의 트럭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냐?”

나빛은 읍내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아저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이, 꼬마야! 날 기다렸니?”

굵직한 남자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빛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밀짚모자를 써서 그런지 더욱 건장해 보이는 아저씨가 떡하니 서있었다. 나빛은 흠뻑 놀랐다.

“요 녀석, 어제는 유괴범 같다고 하면서 날 왜 찾누.”

‘내가 어제 유괴범 같다고 말했었나?’

나빛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죄...죄송해요.”

“하하, 녀석. 너니까 용서해줬다. 그래, 뭘 찾니?”

나빛은 흰 종이에다 쌓아온 전구를 아저씨께 보여드렸다.

“이거요.”

“오, 참 오래된 전구구나. 요즘에는 이런 전구를 볼 수 없지. 똑같은 것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안 돼요. 아저씨, 꼭 필요해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꼭 있어야 해요.”

아저씨가 나빛의 눈을 똑바로 본다. 나빛도 질세라 똑바로 쳐다본다.

“오호. 녀석. 그래, 한 번 찾아보자.”

아저씨는 나빛을 데리고 트럭으로 갔다. 아저씨의 트럭 짐칸에는 커다란 천막으로 쳐져있었다. 그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아저씨는 성큼 트럭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리저리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도 없네. 내가 언제 그 전구를 봤더라. 20년 전인가 아니면 40년 전인가? 하도 오래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트럭 안에 먼지가 마치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먼지가 트럭 안을 온통 가득 메우고는 나빛이 있는 곳까지 뒤덮었다.

“아...아저씨, 찾았어요? 콜록콜록!”

나빛은 조바심이 났다.

“아, 그래 여기다. 그래, 그래, 맞아. 1950년대에서 봤구나. 콜록콜록!”

아저씨는 구름처럼 피어난 먼지 사이로 야릇한 형광 빛을 내는 전구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다. 아저씨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나빛의 머리에도 먼지가 내려앉아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휴! 드디어 찾았다!”

나빛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전구는 마치 마법사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수정구슬처럼 이상한 빛깔을 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가거라. 네게만 필요한 물건이니.”

아저씨는 밀짚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하며 먼지를 떨어냈다. 건강하게 탄 얼굴에 허연 이를 내보이며 활짝 웃고 있었다. 아저씨 얼굴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는 듯 했다. 나빛은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게요.”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나빛은 경중경중 뛰어갔다. 실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할머니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순간 나빛의 머리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다.

‘그래, 버스! 신문 아저씨, **신문을 읽고 계신 아저씨야. 밀짚모자 아저씨! 할머니 기억 속에서 만났던 아저씨!’

나빛은 헐레벌떡 아저씨가 있던 곳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트럭은 그곳에 없었다.

‘뭐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딸깍! 번쩍!”

지난 번 보다 훨씬 강력한 섬광이 나빛의 눈에 쏟아졌다. 한참을 섬광에 눈이 부셔 눈을 뜨지 못했다. 눈이 떠졌을 때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소리가 들렸다. 총소리는 몇 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나빛을 괴롭혔다.

“새 친구라 그런가. 오늘은 벌써 여기에 와 있네. 그런데 하필 여길까. 정말 총소리는 무서워. 제발 내가 죽을 때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이 분홍원피스를 땅속에 묻어두어야지.”

나빛은 젊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젊은 할머니가 바위 밑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빛은 옆에서 지켜본다. 젊은 할머니는 여행 가방에서 보자기에 곱게 싼 원피스를 꺼내 땅속에 넣었다. 나빛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가지고 온 분홍원피스를 함께 집어넣는다.

“이젠, 됐어.”

나빛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헝클어진 백발의 할머니가 걸어왔다. 할머니는 바위 밑으로 갔다. 그러더니 구부정히 앉아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있어. 있어! 드디어 찾았다. 우리 딸 원피스를 찾았어.”

할머니는 분홍원피스를 뽐내다 갖다가 댔다. 할머니의 눈물이 분홍 원피스를 흥건히 적셨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나빛의 마음이 아파왔다. 나빛은 할머니 곁으로 가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고맙다. 나빛아! 나빛아, 고맙다. 이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고맙다.”

나빛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주르르 빠졌다. 어제 밤에 자지 못해서인지 피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긴 하품을 한다. 할머니가 나빛을 안았다. 그러더니 나빛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준다.

“이젠 편히 잘 수 있을 게야. 잘 자렴. 나빛아.”

나빛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하늘 배꼽 위에 있었다.

“나빛아, 어서 일어나라. 뭘 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우리 할머니 모시고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오자. 날이 참 좋다.”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나빛은 나빛의 머리통만한 수박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할머니는 계곡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 할머니는 마치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정신없이 물속에서 침병침병 물장구도 치고, 돌맹이도 주워 저 멀리 던지시기도 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자그만 물고기들을 보면서 깔깔깔 웃어대기도 했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은 참 행복해 보여.”

“어머, 나빛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하고 있는 것만 같아.”

“할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저번에도 물어봤지? 그게 왜 그리 궁금한데?”

“할머니 손녀니까.”

엄마는 조금 미안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그러게, 여태껏 한 번도 궁금해 본적이 없었는데……. 좀 못된 딸이다.”

“좀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럼 넌 내가 가장 행복한 거 알아?”

나빛은 한참을 고민을 한다. 엄마의 행복한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디로 가 있을지 참 궁금했다.

“그러게? 잘 모르겠어. 엄마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데?”

“것 봐. 너두 착한 딸 아니지? 이 엄마는 너희 아빠와 연애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단다. 느그 아빠가 어찌나 쫓아다녔던지 정말~”

엄마의 쿡등이 갑자기 높아진 것 같다. 나빛은 엄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겪을 것 같아 킁킁 웃음이 새어나왔다. 엄마와 나빛의 마음이 통했는지 서로를 보고 웃는다.

‘이제 할머니는 광으로 가지지 않겠지. 그리고 무서운 기억에서 나오셔서 행복한 기억 속에 가 계실 거야.’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나빛의 마음이 흐뭇하다.

엄마의 코고는 소리가 나빛의 방까지 들렸다. 하지만 오늘밤부터는 나빛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르륵 잠속에 빠진다.

“땡땡땡”

마루 벽시계가 11번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탁’ 방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땡그랑~”

세수대야가 떨어지는 소리가 찌렁 들렸다. 나빛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마,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일 거야. 자자. 그냥 자자.’

나빛의 눈이 다시 스르륵 내려앉았다.

“저벽 저벽 저벽”

나빛은 졸린 눈을 비비고 눈을 뜬다. 백발의 할머니가 마당을 서성이더니 또 횡하니 광 안으로 들어간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야? 해결된 게 아니었어!”

나빛은 마음 덜경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삼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는 눈을 감는다.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할머니가 눈에 어른 거렸다.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다. 무서운 기억에서 또 다시 헤매는 할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빛은 쿵쥔거리는 발걸음으로 광 앞까지 오고는 광문을 힘껏 열어 재웠다.

“딸깍”

전구가 켜지는 소리와 함께 강한 섬광이 번쩍였다. 나빛의 눈에 눈물이 또 고였다. 간신히 눈을 떴다.

“어라 산속이 아니네. 여기는 어디일까?”

나빛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눈에 익숙한 공간이다. 장롱하며 텔레비전하며 모두 낮이 익다. 아, 할머니의 방이다. 지금과 똑같은 가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방이다.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군가가 누워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갓 태어난 것 같은 자그마한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누여져있다. 방문이 열리더니 흰 머리가 가득한 쪽진 머리의 할머니가 들어온다. 소반에다 미역국을 들고 오신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다. 나빛은 궁금하여 가까이 다가가 본다. 세상에 엄마다. 나빛의 엄마다. 푸석해 보이지만 지금보다 더 옛돼 보이는 얼굴이다.

“어여 많이 먹어. 그래 붓기가 다 빠져나간다.”

나빛의 젊은 엄마는 손가락을 들고 국물을 뜬다. 할머니가 아기를 안는다.

“아이쿠, 우리 나빛! 빛나라는 뜻에 나빛! 엄마 맘마 먹고, 다음에 나빛도 맘마 먹자.”

나빛이라는 말에 13살 나빛은 깜짝 놀란다.

“뭐야, 저게 나란 말이야?”

나빛은 양중맞고, 조그마한 아기를 바라본다. 쪽진 머리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옛된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엄마가 나빛에게 젖을 물린다.

“나빛아, 어여 먹고 쑥쑥 자라라.”

나빛은 젖을 먹이는 엄마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진다.

“나빛아!”

백발이 숭숭한 할머니가 다정히 13살 나빛에게 다가 오셨다. 그리곤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 할미의 기억이란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말 이 할미는 기뻐한다. 조그만 것이 얼마나 야무지게 네 엄마 젖을 빨던지. 그 모습이 새록새록하구나.”

“할머니!”

나빛은 갓 데운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가슴에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소중히 기억되어지는 것은 백열전등이 켜진 것처럼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다.

“나빛아, 이 할미에게 행복의 기억을 찾아줘서 고맙다. 계속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아프지 않을 것 같구나.”

“할머니, 할머니 집이 참 좋아요. 유럽여행보다도, 해외 어학연수보다도 더요. 고마워요. 할머니.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 주셔서요.”

할머니는 나빛을 살포시 안아준다.